카라의 특별공연

경품추첨을 하는 구본진 LG전자상무

장성지 금호아시아나전무

한광섭 삼성전자상무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상

SBS 김형식 PD

좋은 드라마를 만드는 데 광고는 없어서는 안 될 큰 양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상은 앞으로 더 좋은 드라마, 더 유익한 드라마, 그리고 광고효과도 좋은 드라마를 만들라는 격려와 채찍의 의미로 새기겠습니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상

MBC 여운혁 CP

개인적으로 광고는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한 선전이 아닌 이 시대 문화콘텐츠 생산을 위한 기업의 재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상

KBS 윤명식 국장

우리나라 VJ프로그램의 효시인 VJ특공대는 2000년 5월에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광고주들께서 지난 10년간 VJ특공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VJ특공대는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여실히 반영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꿔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 상

한국일보 조재호 산업부장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일보가 건강하고 공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랍니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 상

한국경제 이학영 산업부장

신문의 광고면을 보면서 신선한 자극도 받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광고지면이 기업 이미지, 제품 특징, 서비스의 핵심을 간결하고 힘 있게, 때로는 부드럽게 전달하고 있는데, 과연 신문기사는 그만한 정성과 프로패셔널리즘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런 자극을 주고 분발하게 해주신 광고주 여러분께 좋은 상을 받게 돼서 기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새기겠습니다.

한편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에는 SBS의 카인과 아벨(드라마 부문)과 MBC의 황금어장(연예오락 부문), 그리고 KBS의 VJ특공대(보도교양 부문)가 각각 선정됐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은 시청률이 높으면서 광고효과가 좋은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반기업 정서가 없고 기본경제상식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에는 한국경제신문의 ‘한국기업 리걸 트랩 비상’ 시리즈와 한국일보의 ‘청출어람 한국기업들의 성공DNA’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은 자유시장경제의 이념 확립과 반기업정서 개선을 위하여 뛰어난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자유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사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총 100여 편의 후보작 가운데 수상작으로 선정된 한국경제신문의 ‘한국기업 리걸 트랩 비상’ 시리즈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국이 이른바 ‘리걸 트랩’으로 불리는 카르텔(담합), 특허, 지적재산권 등을 동원,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기술과 디자인, 마케팅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리걸 트랩에 대한 대응능력까지 갖춰야 진정한 글로벌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기업과 국민들에게 잘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한국일보의 ‘청출어람 한국기업들의 성공DNA’ 시리즈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선 우리 기업들을 소개함으로써 과거 선진기업을 따라잡는 수준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기업들을 앞지르며 더 이상 추월할 대상이 없는 경지에 이른 우리 기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들에게 우리기업에 대한 자부심과 친기업정서를 고취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2009 한국광고주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고인 잔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AA